

‘동창회 문화’로부터의 해방

裴 東 寅

(江原大 社會學科)

지난 4월 14~15일에 유성관광호텔에서 한국 사회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일보사가 후원한 학술 토론회가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 갈등—현상과 대책’을 주제로 열렸었다. 나는 거기서 발표된 논문들 중 절반밖에 직접 들을 수 없었지만 많은 것을 배웠고 지역 갈등 문제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생각할 좋은 기회를 가졌다. 토론 과정에서 나는 지역 감정이 일종의 지역적 동창회 소속 의식이라고 풀이하고 동창회가 지식인들 사이에 지역 갈등을 암암리에 조장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역기능을 수행함을 지적하면서 각종 동창회의 철폐 운동을 대학 사회에서부터 일으킬 필요성을 역설했다. 바로 이 문제와 관련된 주제인 ‘연고주의와 지역감정’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부산대 홍동식 교수에 의해 거기서 발표되었지만 나는 그 분과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나중에 미리 배포된 그의 논문을 매우 흥미 있게 읽었다. 홍교수는 血緣·地緣·學緣을 바탕으로 한 인간 관계의 편향을 연고주의라고 정의하고 이런 경향이 ‘우리 사회의 지역 감정을 배태시켜 온 사회적 토양’을 마련했고, 특히 ‘영·호남인 간에는 지역 감정을 크게 조장하는 부정적 사회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있

다. 그는 연고주의 현상에 대한 인지적 분석과 설명에 한정시켜 현실 이해에 다소 기여했다고 보지만, 현실 변경을 위한 정책학적 또는 실천적 함의를 명시적으로 그의 연구 결과로부터 도출하는 것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나는 여기서 한국 사회의 한 두드러진 문화 형태인 緣故主義의 일반적 특성을 재음미해 보고, 특히 학연의 구체적인 사회 조직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同窓會의 정체를 분석해 봄으로써 지역 감정을 넘어선 사회 갈등의 해소와 함께 보다 나은 해방된 삶을 추구하는 실천적 태도 결정을 끌어내 보고자 한다.

위의 ‘3緣’의 공통된 특성으로서는 ① 과거 지향성, ② 특수주의, ③ 그런 연고를 바탕으로 한 사회 조직에 있어서 목적 의식의 애매모호성으로 집약될 수 있다고 본다. 이들 특성들로부터 연고주의의 다음과 같은 부정적 파급 효과가 도출될 수 있다. 첫째로 보수주의의 정체성, 둘째로 배타주의의 폐쇄성과 편협성, 셋째로 반합리주의(anti-rationalism)의 반지성성과 반해방 지향성이 그것이다. 여기서 ‘반합리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고와 행위에 있어서 납득할 만한 근거가 해당 행위 주체의 인식 체계나 동기 속에

존재하지 않거나 명확히 의식됨이 없이 행해지는 경우를 지칭한다.

그러면 동창회의 관찰을 통해서 위의 가설적 견해의 타당성 여부를 가늠해 보기로 한다.

각 대학마다 동창회가 그 졸업생들 사이에 조직되어 있다. 그것이 종합대학인 경우에는 각 단과대학별로, 그리고 졸업 연도별로 동창회가 있다. 아마도 동창회 없는 대학의 존재를 한국에 서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한두번 동창회에 나가 본 일이 있다. 처음에 나갈 때에는 그저 맹목적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나 동창회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매번 어딘가 깨롭직한 뒷 맛을 느끼게 되었다. 그 이유가 분명치는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예 참석할 필요가 없는 모임에 왔다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동창회의 모임에서 행해지는 일이란 흔히 회장의 내용 없는 인사말, 감사의 이리저러한 경과 보고, 회원 소식, 감사의 결산 보고 등을 간단히 듣고 본격적인 핵심 프로그램은 준비된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러한 중에 평소에 낯익은 분들과는 다시 만나서 반갑다는 애기와 함께 악수를 교환하며 잡다한 담소를 즐기거나 전혀 낯선, 처음 만난 이들과는 마치 오래 전에 헤어졌던 가족이 우연히 상봉해서 더욱 반가운 것처럼 정중하고도 다정하게 서로 인적 사항을 말이나 명함 등으로 교환하고 역시 잡다한 대화를 나눈다. 거기서는 어떤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모두 주의를 집중시켜 함께 토론하거나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우연히 군데군데 모인 주위 참석자들로서 이루어진 집단들 안에서 말의 잔치가 제멋대로 벌어진다. 때로는 남성들 사이에는 술 기운이 오르기 시작하면 시끌벅적한 소음 생산 공장이 되어 버린다. 그것이 평소에 강제성이 짙은 직업 노동 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울분의 분출구 역할을 하는 것도 모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부분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어색스럽고 서먹서먹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동창생이라는 가족 의식을 일부러 곤두 세워 가면서 함께 식사를 즐기는 것이 가장 흐뭇하고 중요한 대목인 것 같다.

사람들이 그러한 동창회 모임에 나오는 동기가 무엇일까 짐작해 본다. 우선 그런 모임에 나올 만큼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들이 오는 것일까? 이 바쁜 세상에 그렇게도 한가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그렇게도 많을까? 거기에 실업자인 동창생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거의 전부가 사회경제적 지위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그럴 듯하게 명함 정도는 남에게 내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다시 말하자면 거의 모두가 거기에 나오는 이들은 직업상 매우 바쁜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성한 모임에 나오는 이유는 흔히 사회심리학적으로는 —내가 사회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소속감에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함에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인 것 같다. 이 소속감의 계기가 과거에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공통 체험의 사실에서 비롯되고 그런 체험이 한 장소에서 다수에 의해 가시적으로 재확인·제연출됨으로써 소속감의 강도가 증폭되는 효과를 거두는 것처럼 보인다. 즉 일종의 군중 심리의 흥분 상태가 빚어진다. 참석자들은 모두 과거로 되돌아가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절대적인 확실성의 세계 속에 옛날 이야기의 향연을 즐긴다. 그것은 확고부동한 불변의 세계로서 다만 기억과 회상이라는 정신 신경 에너지를 동원하기만 하면 된다. 거기서 현재와 미래의 불확실성이 안겨주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대신에 권태로움을 숨길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삶의 체험 기록을 담은 필름을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재생영해야 되기 때문이다. 동어 반복의 지루한 놀이가 아닌

가? 그것은 마치 과거를 기억하고 있지 않기 위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진다. 즉 뒷쪽을 돌아보면서 앞쪽으로 걸어가는 것과도 같다.

또한 동창회 모임에서 선·후배 관계를 따지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동창회 특유의 엄숙한 회귀이라고 볼 수 있다. 선배는 무조건 존경의 대상으로 모셔진다. 그러나 이 세상에 먼저 태어났다는 사실이 그렇게도 존경 받을 만한, 따라서 자랑스럽게 여겨질 근거가 되는 것일까? 모든 선배는 후배를 갖게 마련이고 선배는 권위의 상징이 되어 후배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후배는 그에게 맹종하는 피지배자가 되는 것이다. 수직적 상·하 관계가 시간적 선·후 관계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확정된다. 이러한 허구적 권위의 지배가 특히 우리의 유교문화적 전통과 잘 어울리는 맥락을 동창회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이는 곧 한국 사회에 팽배한 구조적 폭력과 정치적 폭력 지배 체제의 존속 배경을 다소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본다.

위에서 본 소속감에의 욕구, 문계성과 불확실성이 생겨날 수 없는 과거에 안주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선·후배 관계를 따지는 데서 엿보이는 권력에의 욕구 등과 서로 맞물려서 나타나는 자기 정체성의 확인 또는 재확인에 대한 욕구의 충족을 추구하는 데에 동창회 모임에 나오는 보다 깊은 동기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창회는 참석자에게 자기 표현을 통한 사회적 인정에의 욕구 충족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된다. 그것은 서로 자기 자랑을 은근히 과시하는 인상 관리의 경쟁 시장이나 자아 존중의 실험장이 된다. 이 자기 표현이라는 수단의 사용에는 회비를 내는 것 이외에는 거의 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다. 다만 엄숙하고 진지하며 정중하고 점잖은 태도를 견지하는 데에 다소의 신경 에너지를 소모하면 된다. 즉 자기는 몇 년도에 입학했고 몇 회 졸업

생이며 지금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간단히 소개함으로써 족하다. 결국 사람들은 동창회 모임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자랑스러운 모교의 졸업생으로 인정해 주자는 속셈이다. 그것이 아마 동창회가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인 듯싶다. 그런 자기 표현의 사회 과정을 통하여 예외 없이 동창회의 공식 목적으로 표방되는 '상호간의 친목 도모'가 이뤄진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과거에 어느 학교를 통시적으로 함께 다녔다는 사실만으로써 서로 직접 친목을 도모할 수 있다면, 한국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명백한 사실, 아니 인간으로서 하필이면 광대무변한 우주 가운데 이 조그마한 지구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공통 분모로 한 하나의 조직체, 가칭 '한반도 태생 한국인 동창회'나 '지구 출신 인류 동창회'를 결성하여 왜 친목을 도모할 수 없는가라는 물음이 제기된다. 그런데 이처럼 자기 표현→사회적 인정→친목도모로 일관되게 이어질 수 없는 사연이 있다. 문제의 매듭은 '사회적 인정'이라는 대목에 있다고 보여진다. 그것은 표현된 자기 정체성은 자기가 모교를 졸업한 뒤에 무엇을 했는가를 드러내고 그 업적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동창 회원들이 서로 평가한 결과로서 사회적 인정 여부가 판가름나고 이에 따라 친목 도모의 가능성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줄곧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정신병자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이다. 가령 저 유명한 'T.K. 동창회'에서의 친목 도모 광경을 상상해 본다. 오늘(5월 16일)로써 백일기도를 백담사에서 마쳤다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만일 광주 민주 시민 학살과 5공 비리의 최고 책임자로서 판명되었다면 그래도 T.K. 동창회에서는 그가 7년간의 대통령직을 최루탄으

로 지탱해 왔을 망정 역시 대통령이었으니까 자랑스러운 동문으로서 그를 뜨거운 박수로 환영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게 해석한다고 해도 오늘의 한국민의 일반적 도덕 감각과는 상치되는 태도일 것으로 보인다. T.K. 동창회가 군인 출신 대통령을 세 분이나 배출했다는 사실을 자랑이 아닌 불명예로 여기는 T.K. 동창회 회원들도 혹시 적지 않다면, 그들 사이에 진정한 친목이 도모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람들이 동창회 모임에 참여하는 행태와 그 운영 방식이 빚어내는 사회 현상을 일반적으로 '동창회 문화'라고 개념화 한다면, 그것은 대체로 구렁이가 담 넘어가는 식의 두리몽실 문화라고 특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동창회 문화의 특수주의적 측면은 대학 교수들 사이에도 암암리에 출신 학교 중심의 파당 의식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함을 때때로 관찰하게 된다.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앞에 언급된 '3絳'의 공통 특성에 관한 가설이 동창회 문화에서 타당함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동창회 문화는 결국 반합리주의라는 기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해방지향적 삶과는 상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격의 동창회 문화는 진취적이며 합리적인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수행할 것이 분명하다. 거기서는 결코 새로운, 보다 자유롭고 열린 문화가 창조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대학교육에 미치는 악영향도 분명해진다. 대학교육의 주요 목적이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의 비판적 인식 능력의 함양에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곧 합리주의 정신을 떠나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데 반합리주의적 동창회 문화 속에 습관적으로 젖어 있거나 그것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일에 몰두하는 교수들이 학생들 앞에서만 어떻게 갑자기 합리주의자가 될 수 있으며 비판적 이성으로 학문 연구에 임할 수 있을런지 매우 회의

적이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해당 교수가 지닌 人性의 자기 분열적 이중성을 반증해주는 것으로서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동창회 문화에서 볼 수 있는 불명확한 사고 방식과 비합리적 행위 양식을 무비판적으로 내면화 함으로써 초래되는 지역 감정을 비롯한 사회 갈등을 항구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게 된다면 그런 문화는 하루속히 청산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나는 작년 12월 9일자로 母校 동창회장 앞으로 다음과 같은 서한을 발송하였다.

“저에게 동창회 인 회비를 납부해 달라는 통지서를 받고 저는 새삼 저와 동창회와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숙고한 결과, 제가 동창회 회원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이것은 저의 자반적 의사와는 달리 되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저를 지금까지 동창회 회원으로 간주하셨다면 저는 지금부터는 동창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의사 표시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분명히 1963년 2월 26일 법과대학 행정학과에서 법학사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졸업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실이 바로 동창회의 회원이 되는 것으로 자동 연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창회’는 엄연히 하나의 조직체이고 이 조직체는 그 창립에 즈음하여 회칙이 있었을 것이고 그 회칙에 따라, 즉 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졸업생들에 한하여 조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스스로 동창회 회원이 되겠다고 의사 표시를 한 적도 없고 동창회의 목적이 분명히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연 회비가 ‘동창회 발전과 장학금에 쓰여지고 있다’고 위의 통지서에 표현되어 있지만 ‘동창회 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장학금 관계는 그 취지에는 저도 찬동하지만 저의 경제적 형편상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줄 만큼 여유가 있지 못하므로 저는 그런 동창회의 목적에 실제로

참여할 수 없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 동창회는 대체로 매년 한두번 모이게 되고 거기에는 같은 학교를 다녔을 뿐 동기 동창생들 이외에는 전혀 모르는 분들이 모이게 되는데, 특히 최근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반민주·반민족적인 정치 집단(특히 유신 체제하의 공화당과 5공화국의 민정당)에 적극 참여하여 역사를 더럽히고 동문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일을 자행한 졸업생들(특히 저와 가까운 법대 동창생들)도 한 자리에 뻔뻔스럽게도 나타나게 되어 그런 모임의 성격 자체가 에베르호할 뿐만 아니라 어색하고 회극적(아니 비극적이기도 할 것임)입니다. 대체로 어떤 조직체든지 공통의 가치관과 목적 의식이 전제되어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의 자발적 의사에 근거하여 결성되고 운영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동창회에서는 이 원칙이 관철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 현상입니다.

3. 동창회는 전형적인 특수주의적(particularistic) 조직이어서, 특히 지연·혈연·학연 등 과거지향적 의식과 행위 양식이 지배적인 한국의 전통적 문화 유형을 무비판적으로 답습·유지·강화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동창

회와 비슷한 각종 종친회에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급변하는 사회 변동의 시대에 미래지향적이며 합리적·민주적 의식을 고양함으로써 세계사의 흐름에 선도적·진취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우리 대학교 졸업생들이 과거의 인연에만 신경을 써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저에게는 동창회보를 보내주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동창회에 대한 저의 견해와 태도를 너그럽이 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창 회장으로부터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이 나의 견해에 찬성하는지, 아니면 나의 견해를 무조건 묵살해 버린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최고의 지성인들의 대학 사회에서 어떤 이견이 표명되면 그에 대한 반응을 어떤 식으로든지 보여야 우리의 삶의 사회성이 유지된다고 볼 때에 아쉬운 느낌이 든다. 아무튼 이로써 나는 적어도 내면적으로는 동창회 문화와의 영원한 결별을 재확인했고 사회적으로 이를 분명하게 밝힌 셈이다. 내가 느끼는 이 해방감을 다른 이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다. *